

문화방송노보

무단협 1643일째
지명파업 470일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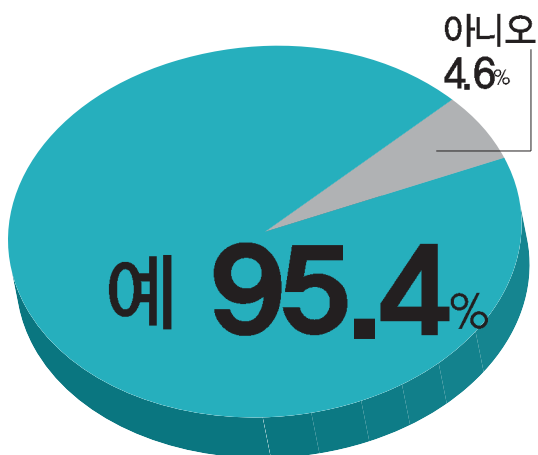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김장겸 사장 사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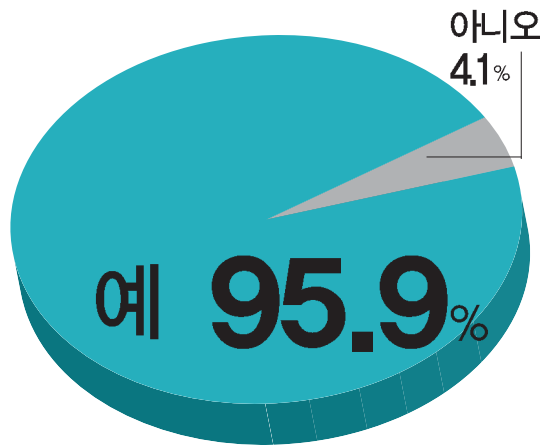
95.4%

MBC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

김장겸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송
문화진흥회 이사진이 퇴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영주 방문진 퇴진해야”

95.9%

경영진 교체 뒤 최우선 개혁 과제?

“방송 독립성 · 공정성 강화”

〈관련기사 2면〉

‘김장겸 · 고영주 퇴진 MBC 비상행동’ 발족 노동조합 · 사내 43개 직능단체 연대 ... “반드시 끌어내린다” 결의

오늘 오전 11시50분 상암동 사옥 로비 집결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국 MBC 구성원들의 한시적 비상기구가 오늘 발족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43개 전국 MBC 직능단체들로 구성된 ‘김장겸 · 고영주 퇴진 MBC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50분 서울 상암동 사옥 로비에서 출범식을 열고 ‘최후의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서울과 16개 지역사의 기자협회, PD협회 등 43개 직능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전국 단위의 범 MBC 협의체 결성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오늘 집회에는 김환균 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의 출범은 공정방송의 가치가 무너지고 최악의 노동탄압이 자행된 MBC의 ‘9년 암흑시대’를 이제 끝내겠다는 시청자와 국민을 향한 다짐이다. 비상행동은 설문결과로 드러난 MBC 구성원들의 충의를 모아, 김장겸과 고영주를 퇴출시키는 그날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상행동 구성 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MBC기자협회, 전국 MBC기자회, MBC미술인협회, MBC방송경영인협회, MBC방송기술인협회, MBC아나운서협회, MBC영상기자회, MBC PD협회, MBC TV 카메라맨협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광주 MBC · 대전MBC · 안동MBC · 제주MBC · 포항MBC 지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광주 MBC · 대전MBC · 목포MBC · 울산MBC · 전주MBC · 제주MBC · MBC충북 · 포항MBC 지회/분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대구MBC · 안동MBC · 전주MBC · MBC충북 지회/분회, 한국 PD연합회 MBC강원영동 · 광주MBC · 대구MBC · 대전MBC · 목포MBC · 부산MBC · 안동MBC · 여수MBC · 원주MBC · 전주MBC · 제주MBC · 춘천MBC · MBC충북 · 포항MBC 지회/지부, 광주MBC · 대구MBC · 대전MBC 행정인협회/경영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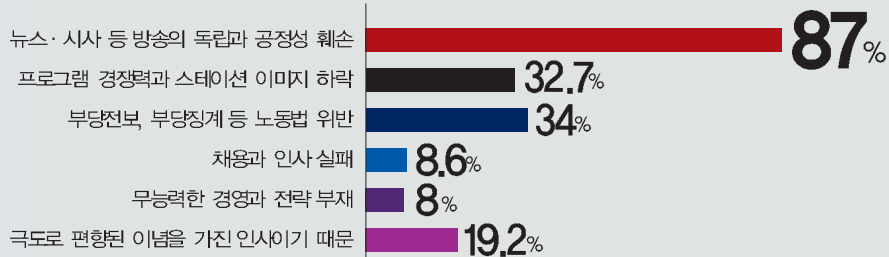
“김장겸 · 고영주 ‘방송 독립성 · 공정성 훼손’ 공범”

대전 이진숙(94%) · 춘천 송재우(91.2%) “사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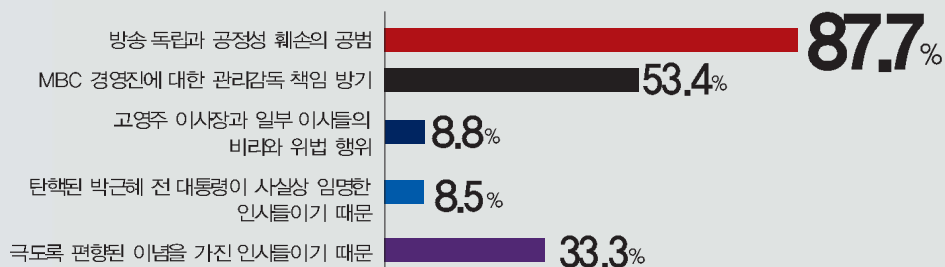
1. 설문조사 기간 : 2017년 6월 26일(월) ~ 6월 30일(금)
2. 설문조사 방법 : 휴대전화 기반 온라인 설문 조사
3. 설문조사 대상 : 본사 및 16개 지역사 총 3,092명
4. 설문 응답 인원 : 2,093명(응답률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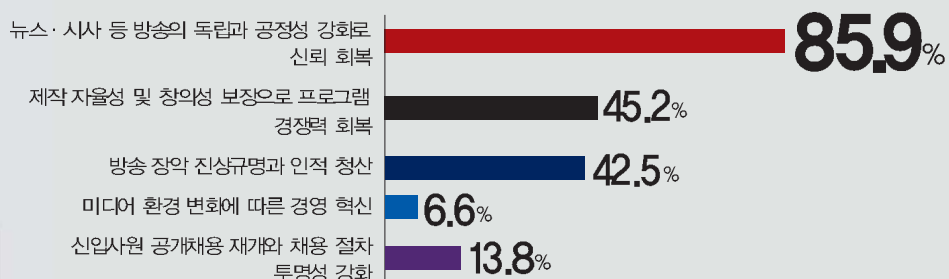
김장겸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응답 가능)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퇴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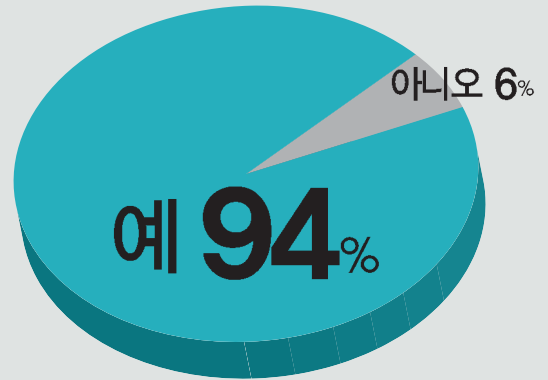


김장겸 사장 퇴진 이후, 가장 시급한 MBC의 개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까지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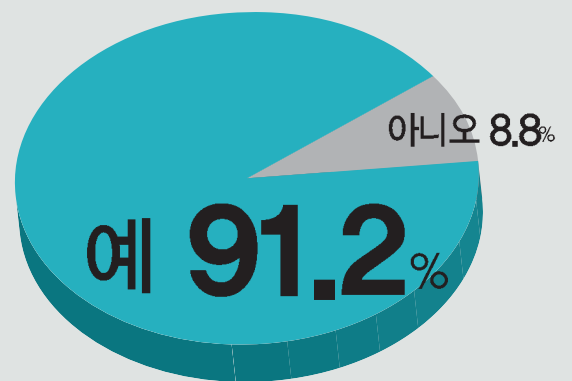
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MBC 직원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 대상 73명 중 67명 응답 (응답률 91.8%)



송재우 춘천MBC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천MBC 직원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 대상 43명 중 34명 응답 (응답률 79%)



MBC 전 직원의 95.4%가 ‘김장겸 사장의 사퇴’를, 95.9%는 ‘고영주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진의 퇴진’을 각각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43개 사내 직능단체들이 서울과 16개 지역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6~30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보직국장과 보직부장, 일반직, 업무직, 연봉직, 계약직 등 전 직원을 망라했다. 사옥 안전관리 요원 등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도 포함됐다. 설문 대상자는 총 3천92명, 응답자는 2천93명(응답률 67.7%)이다.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도 3명중 2명 정도(64.5%)가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김장겸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2개까지 복수응답)로는 ‘뉴스·시사 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8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당정보, 부당징계 등 노동법 위반’(34.5%), ‘프로그램 경쟁력과 스테이션 이미지 하락’(32.7%) 등이 뒤를 이었다.

‘고영주 방문진’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2개까지 복수응답)로는 ‘방송 독립과 공정성 훼손의 공범’(87.7%), ‘MBC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방기’(53.4%), ‘극도로 편향된 이념을 가진 인사들이기 때문’(33.3%) 등의 순이었다.

김장겸 사장 퇴진 후 MBC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뉴스·시사 등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강화로 신뢰 회복’(85.9%)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제작 자율성 및 창의성 보장으로 프로그램 경쟁력 회복’(45.2%), ‘방송 장악 진상규명과 인적 청산’(42.5%)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대전MBC와 춘천MBC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양사 사장(대전 이진숙, 춘천 송재우)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대전 94%(응답률 91.8%), 춘천 91.2%(응답률 79%)가 각각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출범

212개 시민사회 단체 참여 ... ‘공영방송 정상화 필요성’ 전방위 홍보



공영방송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국언론노조와 MBC본부, KBS본부, 전국 212개 시민단체가 함께 행동에 나선다. 왜곡과 편파보도로 얼룩진 적폐를 걷어내 공정방송의 토대를 복원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민사회의 비상 조치이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문제연

구소, 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 발족식을 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MBC와 KBS가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자산인 MBC와 KBS가 정치와 자본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의미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두 공영방송에서 치열하게 전개 중인 경영진 퇴진 투쟁 소식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 선전전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또 각종 언론매체와 팟캐스트 등에 적극 출연하고 기고하는 한편, LED 홍보 차량을 이용한 가두 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를 번갈아 방문하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불금 파티’를 개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민식 PD 인사위 파행... 임원들 “밥 먹을 때 됐다” 중단

54쪽 분량 소명서 읽자 사측 당황 오는 21일 인사위 속개 김 PD는 심의국 전격 발령

‘김장겸은 물러나라’ 퍼포먼스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김민식 PD의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MBC 경영진은 지난 13일 오후 5시 시작된 인사위원회를 30여 분만에 정회시키는 등 파행을 빚다 결국 1시간 만에 중단했다. 이날로 대기발령이 종료된 김 PD는 심의국으로 전보 조치됐고, 중단된 인사위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속개된다. 사측의 징계 강행 의지가 거듭 확인된 것이다.

김 PD는 인사위에 출석해 미리 준비한 54쪽 분량의 소명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사위원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소명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인사위원장인 백종문 부사장은 “장난치는 거요?”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고,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발언을 3분 내로 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임원은 회의실 밖까지 들릴 정도의 고성을 질렀다. 취업규칙 69조는 인사위



에 회부된 직원에게 소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인사위원들이 임의로 중단을 강요한 것이다. 결국 백종문 부사장은 인사부장과 상의한 끝에 오후 6시쯤 인사위 정회를 선언하고 다른 인사위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김 PD는 이날 인사위 상황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계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사측은 미리 제지했다.

인사위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온 김 PD는 응원을 위해 대기하던 조합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PD는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지난

5년간 임원들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대신하고 싶었다.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임원들이 계속 저의 질문과 소명을 막았다. 밥 먹을 때가 됐으니 그만 하자고 했다. 결국 백종문 부사장이 ‘그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더니 정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위가 열리는 동안 상암동 MBC 사옥 앞에는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10명의 시민들이 김 PD를 응원하며 ‘김장겸 퇴진’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특별근로감독’ 현장조사 마쳐 임원 등 핵심 책임자 소환 검토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노동탄압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MBC 특별근로감독 현장조사가 14일 종료됐다.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과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탄압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사 양측 증인과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고, 방문조사를 12일간 진행했다.

MBC 경영진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노동조합원 부당징계와 부당 전보 등은 이미 법원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간부들이 노조 탈퇴를 강요·중용했다”는 추가 증언과 진술이 잇따르면서 김장겸과 그 하수인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부터 검찰의 지휘에 따라 김장겸·백종문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전망이다. 사측의 비협조와 감독 방해 등으로 현장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돼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장 채증, 자료 제출 기피, 책임 떠넘기기... ‘공권력 무시’ 경영진 추태로 얼룩

노동탄압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김장겸과 경영진은 끊임없이 감독행위를 방해하고 ‘정치 논리’ 프레임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했다.

사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매일 상암동 사옥 특별근로감독 조사실 앞에 보도국 기자와 촬영 장비를 대기(사진 아래)시켰다. 근로감독관들의 동향을 살피고, 이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조합원들을 채증하기 위해서였다. 근로기준법 102조에 보장된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심문을 방해하고, 노동조합법 81조 4항에서 금지한 ‘지배·개입’ 등 위법 행위를 추가로 저지른 셈이다. 사측은 술한 노동 탄압 죄상과 혐의들에 대해 이렇다 할 변명조차 하지 못하면서 “특별근로감독은 방송장악”이라는 악의적 흠집내기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분풀이듯 채증한 것이다. 도둑이 뭉둥이 든 격이다.



김장겸 등 조사 대상자들은 핵심 자료 제출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등 감독 방해 행위로 일관했다. 조합에 들어온 다수 제보에 따르면, 핵심 책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기피했고, 실무자들에게 진술 조사를 떠넘기는 무책임과 후안무치로 일관했다. 기초적인 채용·인사발령 자료를 요구하는 감독관들에게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안 보인다”는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뒤로는 온갖 핏수를 쓰면서도 앞에서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묵묵히 참으며 조사에 협조해 왔다”는 뻔뻔한 성명을 내놨다.

뉴스 동원해 “특별근로감독=방송장악” 악질적 왜곡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장겸 등은 특감 기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이른바 ‘성명 보도’를 연달아 쏟아냈다. <뉴스데스크>는 현장조사가 본격 개시된 지난달 29일 3건, 현장조사 연장이 결정된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매일 1건, 모두 7개의 리포트를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집중 비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표적 사찰, 편파 수사, 방송장악”이라는 주장과 함께, 여기에 동조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논평을 묶어 별도로 보도했다.



심지어 지난 11일 <뉴스투데이>(사진 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시작한 MBC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믿기 어려운 앵커 멘트가 전파를 탔다. 자신들의 주장을 제3자 주장인양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수법마저 포기하고, “방송 장악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며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양 단정해 보도한 것이다. 사실상의 방송 사고이자 전파를 이용한 사기 행위이다. 자신들의 위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파를 극단적으로 사유화하고 뉴스의 품격이나 방송 윤리 따위는 철저히 짓밟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반면 MBC가 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는지, 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법 위반사항은 무엇으로 추정되는지, 쟁점들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는 보도는 단 한 건, 단 한 줄도 없었다.

수치심을 모르는 송재우의 꼼수 · 기행 퍼레이드

‘절차 무시’ 부당징계 강행뒤 지노위 심판 전 돌연 철회

춘천MBC가 최현영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돌연 철회했다. 사측은 지난 4일 발표한 인사발령에서 징계 철회와 함께 최 지부장을 편성 제작국으로 전격 복귀시켰다. 사측은 공문에서 ‘재심 미개최’를 징계 철회 사유로 제시했다. 법적 처벌을 면해보려는 꼼수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최현영 지부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는 결정 당시부터 명백히 부당한 표적성 보복 징계였다. 징계사유가 사측의 일방적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사측은 재심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으며, 사규상 보장된 사원의 권리와 절차마저 무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재심 불수용은 사장의 ‘재량권’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지난달 30일 노사협의회에서도 송재우 사장은 “사규에는 사장이 ‘재심’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불과 나흘 뒤 말을 뒤집으며 징계를 스스로 철회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심판을 앞두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급조된 꼼수이다. 지난 5일 진행된 지노위 현장조사를



하루 앞두고 부당징계를 부랴부랴 취소한 것이다. 그러나 춘천MBC 사규에는 사측이 공문에 적시한 ‘징계 철회’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춘천지부는 ‘징계철회’ 인사발령의 근거와 효력, 사후 조치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구두와 공문으로 사측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지노위의 최종 심판 결과는 모레(19일) 발표된다.

한편 송재우 사장의 기이한 행동은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송 사장은 지난 5일 퇴근

시간 자신의 차량을 사옥에서 400m 떨어진 도로에 미리 주차시켰다. 춘천지부 조합원들과 전국 지부장들의 피케팅 시위를 외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요청한 경찰 호위까지 받으며 차량으로 걸어가던 송 사장은 조합 간부가 대화를 요청하자 갑자기 ‘전력 질주’하며 출행량을 치는 황당한 촌극(사진)을 연출했다. 이 장면은 언론보도와 유튜브 등을 통해 ‘메롱’ 영상에 못지않은 화제를 일으켰다.

대전지부, 부당징계 · 전보 지노위 구제 신청

이진숙 사장 퇴진 투쟁, 지역사회 확산

대전지부는 지난달 29일 이교선 조합원(보도 민실위간사), 이승섭 조합원(교육홍보부장)의 부당징계와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대전MBC 사측은 지난 4월 이교선 조합원에 대해 7분 지각과 취재 계획 미제출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1개월, 이승섭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집 프로그램 방송 지연, 무단결근, 업무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동조합의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진숙 대전MBC 사장이 두 기자를 표적 징계한 것이다. 이후 대전지부는 74일째 회사 안팎에서 피케팅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지부는 이진숙 사장 퇴진 운동을 지역 사회 전체의 시민 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교통량이 많은 엑스포과학공원 네거리에 출근 시간대 현수막과 피케팅 시위를 시작했다. 앞서 6일에는 사옥 주변 지역에 이진숙 사장과 최혁재 보도국장 등 MBC를 망친 부역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 ‘대전MBC 이진숙 사장은 공영방송 장악 주범으로 대전지역의 수치’라는 취지의 선전전을 강화했다. 지난 8일 갤러리아 타임월드 백화점 앞에서 대전충남민언련과 공동으로 이진숙, 최혁재, 김원배(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대전지역 언론부역자 퇴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오는 21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한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텐안먼 민주화 운동’ 주역 ‘MBC 언론탄압’ 현장조사 온다

‘국경없는 기자회’ 대표단 20일 조합 사무실 방문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중국 텐안먼 민주화 운동의 주역 등 국제사회의 언론, 인권 분야 권위자들이 MBC의 언론 탄압 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언론의 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 국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 대표단은 오는 20일 노동조합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 명예이사와 우엘 카이시 명예이사가,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사무총장,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지국장 등이 참석해 김연국 위원장과 왕종명 기자협회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시린 에바디는 민주주의 신장과 여성, 어린이, 난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03년 여성 최초이자 이란인 최초로 노벨평화



우엘 카이시

시린 에바디

상을 수상한 인권 변호사이다. 우엘 카이시는 최근 영면한 류사오보와 함께 1989년 중국 텐안먼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다.

대표단은 면담에서 노동조합과 기자회견 등을 상대로 지난 9년 MBC에서 벌어진 부당한 언론인 징계와 노동 탄압,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사례를

청취하고,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한국의 언론 독립성이 꾸준히 훼손되고, 언론인들의 자기 검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밝혀왔다.

1985년 창립한 <국경없는 기자회>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며 매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31위까지 올라갔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 70위까지 떨어졌다. 올해 발표된 순위는 소폭 오른 63위이다. 정권의 언론장악에 따른 독립성 훼손은 여전했지만, 대통령 탄핵 소추와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 보도가 비교적 활발했던 점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만이나 몽골보다도 낮은 순위이다.

“MBC 구성원들의 외로운 싸움에 위로가 되길”

김민식PD 사연 듣고 ‘1인 시위’ 나선 이예진씨



지난 한 주 서울 MBC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 사옥 앞에서 한 여성을 마주쳤다. ‘김장겸 퇴진’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 시민 이예진씨(사진)이다. 이 씨는 지난 10일부터 아침 8시 상암동으로 ‘출근’해 폭염을 무릅쓰고 피켓 시위에 나섰다. 집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갔다.

“집에 TV가 없다”는 이 씨가 MBC 사태에 관심을 기울인 건 김민식 PD 덕이었다. 최근 유명 팟캐스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한 김 PD의 사연에 큰 충격을 받았다.

“MBC는 제게 화려했던 옛 추억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부터가 극우 성향의 시청자들만 보는 방송이라 여기고 아예 관심을 켜지 않았죠. 시위를 위해 버스를 타려고 여의도 가는 노선을 찾았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김민식 PD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미처 몰랐던 MBC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어쩔 그리 유쾌하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웃음)

궁금한 게 많아진 이 씨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았다. 그간 MBC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학

습’하기 시작했다. 국정농단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청산했듯 공영방송 MBC도 시청자와 시민의 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곧바로 피켓을 준비했다.

“지극히 평범한 제가 난생 처음 시위라는 걸 해 보려니 피켓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씨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김장겸 퇴진’ ‘MBC는 국민 속으로’라고 적어 집을 나섰다. 그러나 첫 날부터 회사 보안관계자가 ‘사유지 밖으로 나가 달라’며 밀어냈다고 한다. “점점 밀리니까 오기가 발동하더라고요. 김민식 PD도 ‘물러나라’ 외침을 제지당하니깐 오히려 라이브 방송까지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는 김 PD의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3일에는 오후에도 사옥 주변에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영업자인 이 씨는 언제까지 시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MBC 구성원들의) 외로운 싸움에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지치지 말고 반드시 김장겸 사장과 경영진을 끌어내려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